



+ 장익선 ·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서양 미술 속 빛과 색

모네(Claude Monet)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 속 자료 수집과 분석

1부.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

2부. 모네(Claude M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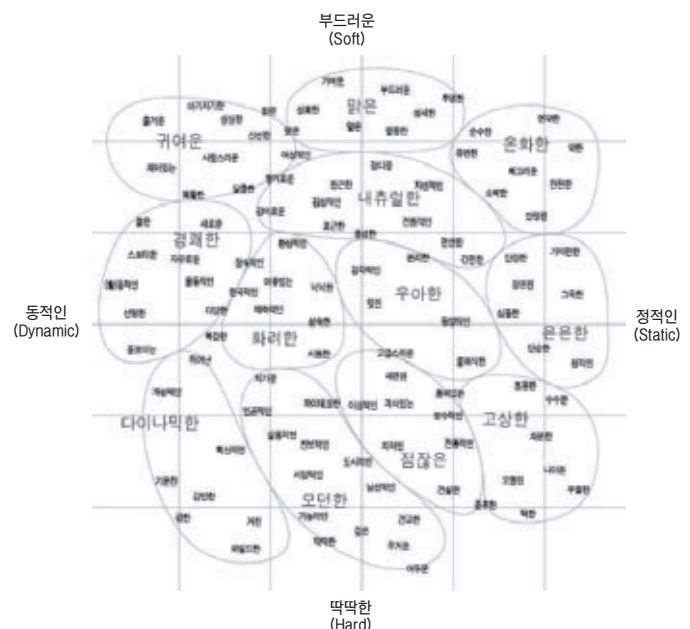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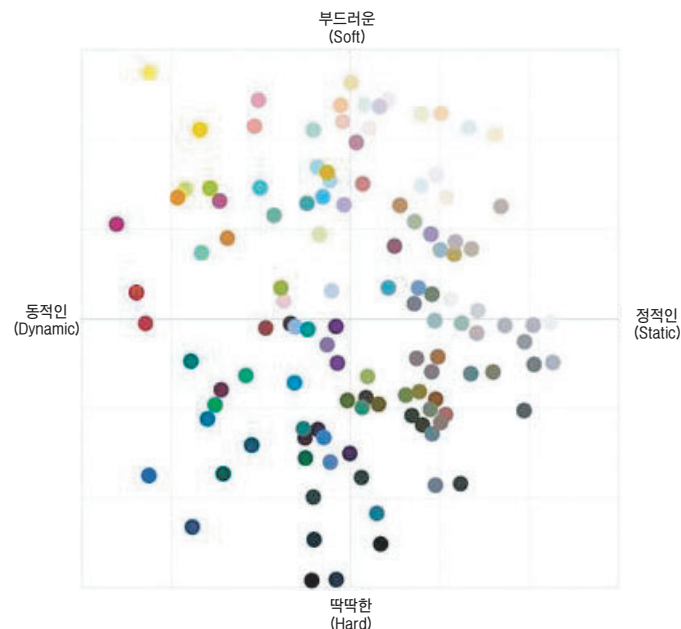
3부. 람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모네와 관련된 글은 두 시간으로 구성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 속 자료 수집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Tool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다음 시간에는 '모네의 작품 분석하기'로 이번 시간 말미에 선보일 zone system을 도입, 모네의 다양한 작품 세계와 그에 따른 에피소드, Tool에 따른 분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Image Map

이번 시간은 한 장의 사진을 필두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색채에 대한 이미지 맵, 출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한국색채연구회]

[Image map의 예]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다채로운 Color 속에 담긴 다양하고 미묘한 느낌들이 각종 언어의 표현 속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분류되어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에 따라 모아진 자료(사진, 문자, 컬러 등)를 비슷한 요소 또는 각각에 해당되는 조건이 충족하도록, 연관성이 높은 것은 서로 가깝게, 연관성이 낮은 서로 멀게 좌표축 상에 배치해 놓은 것을 우리는 'Image map'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Image map'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각 좌표축은 Image map의 목적이나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조건이 된다. Image map은 색채, 광고, 제품디자인, 건축, 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창출, 콘셉트 스케치, 시장 파악 등의 기초 조사에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 과정 중의 하나이다.

위의 Image map은 필자가 '빛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콘셉트 도출을 하기 위한 사진 작업의 일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만들어낼 영상과 조명이 어떤 Color Tone을 갖게 될 것인지, 어떤 앵글을 갖게 될 것인지, 어떤 호흡을 만들어 낼 것인지, 어떤 크기를 갖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과정이 바로 Image map 속에 들어 있다. 그렇게 결정된 콘셉트가 하나의 그림이나 사진 또는 디자인으로 도출될 때 우리는 완벽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모네(Claude Monet)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Image map'을 소개하는 것은 모네의 작품 속에서 발견하게 될 모티브와 감성들을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것이 바로 서양 미술 속에서 빛과 색의 이야기를 찾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는 미술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이며, 내가 그토록 만들고 싶던 영상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조명이 바로 모네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녹아있기 때문이다.

Work Analysis with Zon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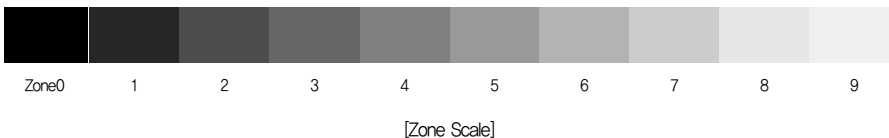
앞에서 우리는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모은 각종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를 접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탄탄한 이론들이 바탕이 된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들은 그 동안 다양한 시각과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이미 분석 및 해석 되어졌고, 무수히 많은 논문도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나 미학적 의미가 아니며, 미술적 기법도 아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고증된 작품 속에서 빛과 색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낼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들의 작품을 한 장의 사진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사진기술 이론인 'Zone system'을 접목하여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Zone system'은 1930년대 후반 미국의 사진작가 안셀 아담스와 프레드 아처가 감광측정법¹⁾이라는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발표한 사진기술 이론이다. 'Zone system'은 기본적으로 흑백 사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며, 흑백 사진에서 원하는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콘트라스트, 톤, 디테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비록 'Zone system'이 흑백 사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지만, 컬러 사진을 분석하는데 있어 무용지물은 아니다. 때론, 컬러가 빛의 밸런스를 판단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컬러 역시 그들 나름대로 적정 톤을 가지고 있고, 빛과 컬러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작품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흑백 사진은 피사체 밝기의 변화를 Black에서 White까지의 연속적인 계조로서 재현한다. 흑백 사진에서는 빛의 양이 많아 밝은 것은 White에 가깝게 표현하고, 반대로 어두운 것은 Black에 가깝게 표현한다. 그 빛의 양을 흑백으로만 생각해 10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바로 'Zone system'이다. 여기서 Black과 White를 단순히 Color 자체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는 18%의 반사율을 가진 Gray를 적정 노출로 인식하며, 이 18% 밝기를 가진 Gray가 바로 Zone 5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색은 흰색과 검은색처럼 무채색도 있지만, 유채색도 존재한다. 인간의 눈은 피사체를 Color로 인식하여 보기 때문에, 현실의 피사체, 앞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컬러로 채색된 미술 작품들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 감광측정법: 감광물질의 빛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유채색이 Gray Scale로 전환된 색을 'Tone'이라 부르며, Color에 따른 Tone과 반사율이 다음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채색을 Gray scale로 변환시키면, 유채색은 0~9까지의 zone으로 구분되어 진다. 또한, 각각의 zone은 단순히 명암의 차이뿐만 아니라, zone의 세부 표현 능력, 즉, Detail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Black 3% -2 Stop	Gray 18% Balanced				Light Gray 36% +1 Stop	White 93% +2 Stop
	Cobalt 9% -1 Stop	Emerald 12% -0.5 Stop	Green 18% Balanced	Light Green 24% +0.5 Stop	Yellow 36% +1 Stop	Light Yellow 48% +1.5 Stop
			Blue 18% Balanced		Sky Blue 36% +1 Stop	Light Sky 48% +1.5 Stop
	Violet 9% -1 Stop	Brown 12% -0.5 Stop	Red 18% Balanced	Orange 24% +0.5 Stop	Pink 36% +1 Stop	Light Pink 48% +1.5 Stop
					Light Violet 36% +1 Stop	
Black 3% -2 Stop	Gray 18% Balanced				Light Gray 36% +1 Stop	White 93% +2 Stop
	Cobalt 9% -1 Stop	Emerald 12% -0.5 Stop	Green 18% Balanced	Light Green 24% +0.5 Stop	Yellow 36% +1 Stop	Light Yellow 48% +1.5 Stop
			Blue 18% Balanced		Sky Blue 36% +1 Stop	Light Sky 48% +1.5 Stop
	Violet 9% -1 Stop	Brown 12% -0.5 Stop	Red 18% Balanced	Orange 24% +0.5 Stop	Pink 36% +1 Stop	Light Pink 48% +1.5 Stop
					Light Violet 36% +1 Stop	

[Color와 Tone의 관계]

[등급에 따른 zone의 세부 표현 능력]

등급	존	세부 표현 능력
낮은 등급	존0	· 어떠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음
	존Ⅰ	· 디테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가느다란 선 확인 가능
	존Ⅱ	· 디테일이 미세하게 질감이 나타남 · 검은색 옷이나 광량이 부족할 때의 그늘 진 곳
	존Ⅲ	· 디테일이 풍부하게 표현됨 · 머리카락, 짙은 색의 청바지, 짙은 갈색 낙엽 등
중간 등급	존Ⅳ	· 디테일이 매우 풍부함 · 보통의 어두운 나뭇잎 전체, 검은 바위 또는 풍경의 그림자 부분, 햇빛 아래의 인물 사진에서 백인의 피부에 대한 표준 그림자 부분
	존Ⅴ	· 디테일이 가장 잘 표현됨 · 햇빛에 조명되는 풍경에서 눈 위의 맑게 갠 하늘, 전정색성 필름에 의해서 묘사된 맑은 북쪽하늘, 암석 · 노출 측정시 사용하는 그레이카드와 동일한 톤
	존Ⅵ	· 디테일의 표현이 풍부함 · 햇빛, 확산된 스카이라이트 또는 인공 빛 아래에서의 백인의 평균적인 피부등급, 밝은 바위, 햇빛 아래에서의 풍경 속 눈의 그림자 부분, 약한 푸른색 필터를 부착한 전정색성 필름에 의해 묘사된 맑게 갠 북쪽하늘
높은 등급	존Ⅶ	· 매우 산뜻한 색깔의 피부, 옅은 회색 물체, 급한 각도로 비스듬하게 조명을 받은 보통의 눈
	존Ⅷ	· 질감과 부드러운 등급을 가진 백색, 질감 있는 눈, 백인 피부의 하이라이트 부분
	존Ⅸ	· 거의 순백의 질감 없는 흰색, 완전히 질감은 없지만 반대로 질감 면에서 약간 색조가 있는 존Ⅰ의 질감에 해당, 균일한 햇빛 아래의 눈, 하얀색
	존Ⅹ	· 순수 하얀색, 이미지 부분의 거울 면 같은 번들거림이나 광원

모네(Claude Monet)의 작품과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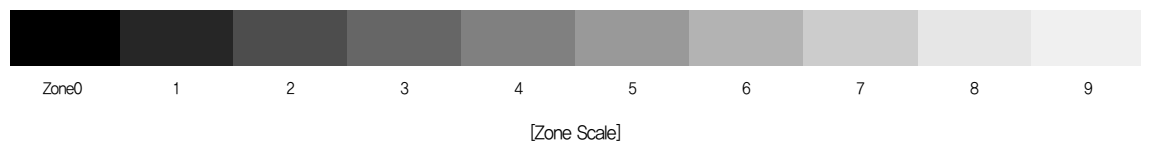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을 응용하여 모네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자.



[Manet, Édouard, Luncheon on the Grass(Le déjeuner sur l'herbe) (1863)]



[Claude Monet, Luncheon on the Grass(Le déjeuner sur l'herbe) (1865~66)]



모네'는 '마네'에 의해 발견된 빛의 본질을 깨닫고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들을 잘 엿볼 수 있는 두 작품이 바로 위에 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이 두 작품은 1863년 '마네'로 하여금 파격적인 구도와 소재, 원근법으로 인하여 세간의 비난 대상이 되도록 만든 작품이며, '모네'에게는 '마네'에 의해 창조된 빛을 재창조시킨 작품이다.

두 작품을 zone scale에 적용하여 비교해 보자. 사진이 아니고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Zone system'이 적용될 정도로 그들의 작품은 정확하고 세밀하였으며, 위대했음을 엿볼 수 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주제의 작품이고, '모네'가 '마네'의 작품을 염두하고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표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네'의 작품은 Tone과 Detail에 있어 그 분포가 전체적으로 zone scale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조와 그림자와 나무들의 뭉툭한 Detail 등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숲과 사물의 강력한 컬러 대비와 중앙에 위치한 나체 여인의 새하얀 피부와 후면의 밝은 빛이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내어 자칫하면 밋밋할 수 있던 그림에 강한 집중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바로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집중도와 대비가 강한 그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모네'의 작품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햇살이 숲 전체에 비추어 내리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 잎, 그들의 옷, 어깨, 등에 도... 나무 그늘 아래에 치러지고 있는 점심 식사에는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어른거리는 햇살과 나뭇잎들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가 경쾌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 한 낮, 싱그러운 숲 속에서 일행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빛이 만들어내는 High light와 독특한 색감, 그림 중앙에 위치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옷과 얼굴을 살펴보면, 간접광으로 인한 표현까지 정말 그림임을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Tone이 밝고 화사하다는 느낌이 있어 자칫하면 떠 보일 수 있는 그림이 zone scale에 대조하여 보았을 때 거의 완벽한 노출을 이루고 있다.

풍부한 색의 표현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어깨에 닿은 High light의 색감과 바닥에 깔린 천과 그림자의 명암을 단순히 백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지 않은 것, 드레스의 세밀함을 살린 것이 선이 아닌 Color의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네'의 작품이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

다시 '모네'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식사』로 돌아가 그 구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사진에서 마치 뷰파인더 안에 다 담지 못한 듯 금빛의 드레스가 오묘한 구도 속에 잡혀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모네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진 못했다. 밀린 집세로 인해 이 그림은 집 주인에게 팔려지고, 열악한 보관 환경이 오늘날 저런 형태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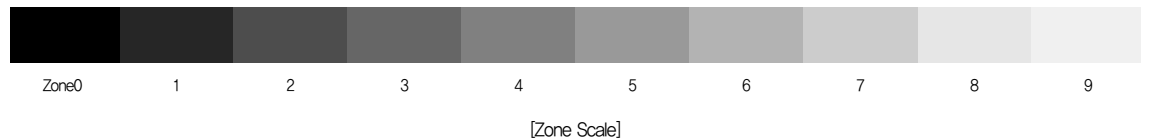
모네의 그림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 여인이 등장하지만 모두 그의 부인 '까미유' 한 사람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의 생활환경이 모델을 구하지 못할 만큼 부유하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부인을 아주 많이 사랑하여 그랬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가 담고자 하는 것이 인물의 감정과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 작품은 모네의 『정원의 여인들』이다.



[Claude Monet – Femmes au jardin (1867)]



이 작품은 주광이 된 빛의 방향과 주광과 그림자가 이루어낸 구도와 색감에 주목하기 바란다. 또한,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빛이 가득한 하늘과 빛이 닿은 땅의 Zone Scale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빛이 캔버스의 대각선으로 지나가면서 큰 구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 내는 점박이 드레스의 흐름과 양산 속 인물에 나타나는 색감, 빛이 닿는 길과 그늘진 곳의 색감처리, 그림 왼쪽에 서있는 두 사람의 의상 색조 등 빛이 만들어 내는 색감과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빛이 가득한 하늘과 빛이 닿은 땅의 노출의 차에 대한 아쉬움은 풀리지 않은 미제로 남아있다.